

지성의 기원찾기

가운데 한껏 고독하여지고
은 것도 새로운 변화와 행복
추구하는 것이라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절이라고 하는 재단
조건이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



류 계 환

〈논설위원〉

며 3년전 대학모습과 큰 변
인다고 말한다. 과거의 대학사
태에서 사 속에서 서로의 노력

한국백경-거문도 편



◇... 용인캠퍼스가 지난 9월22일로 10돌을...
 ◇...맞았다. 「서자(庶子)의 설움」을 「왕산인」...
 ◇...의 자부심」을 「민주화의 고통」을 부여한...
 ◇...고 성숙한 용인의 오늘을 보며 다시금...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 본보는 용인설립10주년을 맞아 사진특...
 ◇...집과 총장특별대담, 수필, 가상광드름 2...
 ◇...면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용인캠퍼스 첫 강의동 어문학과(당시 인문과학관)의 공사현장. 이 건물의 완공으로 용인의 첫 수업이 81년 8월25일 시작되었다.

▲79년 설립, 2천년 중흥대의 정점다려낸 89년 오늘의 용인캠퍼스 모습.



▲지난 9월26일 기공돼 오는 91년 7월말 완공예정인 도서관 조감도.
 완공후 용인캠퍼스의 메인 건물로 자리잡게될 도서관은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연건평 2천2백25평 건물로 1천6백석 열람실, 1백50석 계단식 세미나실, 교수열람실, 행정사무실 등으로 꾸며지며 행정·단일등을 위해 모든 유리창이 '2중유리'로 만들어진다.

사진으로 보는 왕산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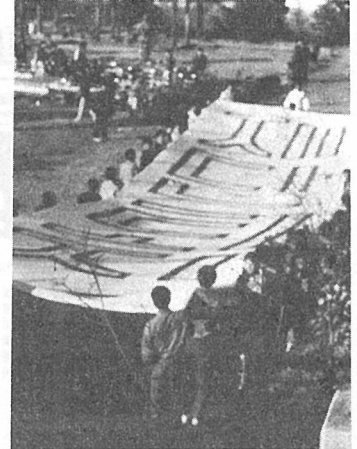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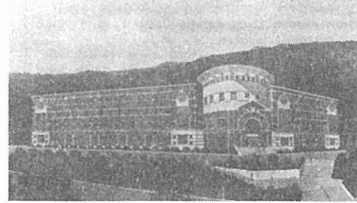


▲80년 7월1일 황량한 용인캠퍼스 부지에서 첫삽을 뜨는 모습 2천년대를 향했던 그 삽의 진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마치 용인캠퍼스를 탄생케 하는 시의모습. 땅이 없기 때문에 이토록 애를 먹었던 용인캠퍼스의 첫 삽.

도서관 신축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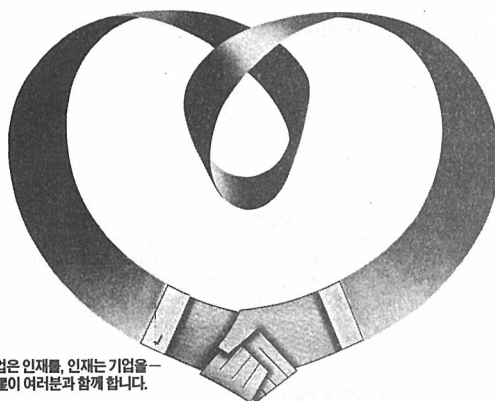


▲87년 학원민주화 투쟁기간중 학생들이 「재단퇴진」, 「이라 쓰인 대형 현수막을 들고 교내를 돌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용인캠퍼스 연표 및 주요일지》

- △79년 9월22일-용인본교 설립인가발음
- △80년 7월 7일-최초강의동 어문학과 (당시인문과학관) 기공
- △80년 10월 2일-종합대학교 승격과 함께 용인대학교로 편제조정
- △80년 10월-2천년대 용인캠퍼스 마스터플랜 발표
- △81년 8월25일-용인캠퍼스 시무식. 수업시작
- △82년 3월 9일-용인대생학부모「용인대학문제 해결추진위원회」구성
- △82년 10월 5일-용인대학 용인캠퍼스로 편제조정
- △83년 3월28일-용인호국단 입원 환원문제 관철요구하며 집단사표제출
- △83년 5월25일~6월7일-학적문제 관련된 유언을 배제한 8명징계조치, 이의 철회요구 수업기부
- △83년 9월 8일-문리와 대학 용인이전
- △84년 3월20일-용인이전 문리대생 서울학적환원요구, 서울캠퍼스에서 농성
- △85년 2월28일-모원학사개관
- △85년 5월15일-재단공개, 마스터플랜 구체화요구. 3백여 명수업기부, 5주간농성. 8명제적, 12명 유가징학처분
- △86년 5월14일-「반제반파소 민족민주투쟁위원회」발족
- △86년 10월 8일-교문, 「명수당」 기념비등 완공, 학생회관 착공
- △87년 6월-학내, 성남동에서 연일 가두시위. 12일 이시경군 「연행후 석방을 위한 철야농성」 참가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25일 이재용군 경찰대앞 시위도중 경찰에 쫓겨 교통사고로 사망.
- △87년 9-10-11월-연인원 2천여명의 철야농성. 1백여명의 단식으로까지 확대된 50여일간의 학원투쟁으로 총장퇴진, 도서관 착공등을 합의한 뒤, 16일 수업개개. 한때, 「예비역 협의회」와 「학원민주화투쟁위원회」간의 대립으로 학생들이 양분되기도 함.
- △88년 2월11일-조대 부총장에 석일교수 임명
- △88년 3월 4일-학생회관 완공
- △88년 5월24일-「5·18광주 영령수모비」제막
- △88년 9월 2일-확대운영회의 결과 서울-용인 총학생회 분리확정.
- △88년10월29일-문리과대학, 인문·자연과학 대학으로 분리
- △88년11월 8일-공수부대원 25명 학내난입, 3차례 「비상학생총회」개회. 국방부 방문, 장관 면담시도 등 대응. 관련부대장 공개사과후 일단락.
- △88년11월18일-조대 총학생회장에게 이은희양 당선
- △89년 6월-「제13차 세계 청년학생총회」참가투쟁 전개, 본교생 임수경양 전대협대표로 대회참가, 판문점으로 귀환후 구속.

明星그림



기업은 인재를, 인재는 기업을—
 曉星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일터—曉星

풍요와 번영의 21세기를 추구하는 효성과 멋진 하모니를 이룰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90년도 대졸신입사원모집

모집부문

구분	전공	인원	응시 자격
인사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법학, 회계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정치외교학, 신문화운동, 환경학, 철학, 사학이전	000명	●장규 4년제대학 졸업 60%이상 ●졸업장 취득 또는 기출입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발령일 당시 만 25세 이하
이공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설비공학, 화학공학, 금속공학, 토목공학, 사설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고분자공학, 차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물리학, 수학	000명	●제1차 대학입시 합격자 또는 제2차 대학입시 합격자 ●제1차 대학입시 합격자 또는 제2차 대학입시 합격자 ●제1차 대학입시 합격자 또는 제2차 대학입시 합격자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적성검사, 면접 및 신체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임용률 1차 합격자 및 2차 합격자 포함)

제출서류

- 1. 입학사정관서 (소정양식)
- 2. 대학입학 성적증명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발표: 1989년 10월31일(화)12:00 ●장소: 접수처와 동일

원서교부 및 접수

●교부발급기간: 1989년 10월16일(월)~10월21일(토)09:00~17:00

지 역	교 부 장 소	전 화 번 호
서울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1-1 효성빌딩	771-13 (02)225.2266
부산	부산시 중구 동문동 47-8 14층 효성빌딩	436-1971~7
대구	대구시 중구 동문동 103-6 효성빌딩	292-1503~7
광주	광주시 중구 동문동 103-6 효성빌딩 4층	222-1175~6
대전	대전시 중구 동문동 103-6 효성빌딩	45-0141~5
창원	창원시 중구 동문동 103-6 효성빌딩	82-0141, 82-0131
울산	울산시 중구 동문동 103-6 효성빌딩	72-7171~9

●접수처: (100-110)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1-1 효성빌딩 효성인력관리위원회

기 타

- 수험접수는 마지막 17:00까지 도착한 용기수령에 한함.
- 합격 발표일은 1989년 11월말 이전 관공서 인터넷에 게시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771-13(02)225.2266)



曉星인력관리위원회

- 위원장: 김성환 (회장) ●위원장: 김성환 (회장) ●위원장: 김성환 (회장)
- 위원장: 김성환 (회장) ●위원장: 김성환 (회장) ●위원장: 김성환 (회장)
- 위원장: 김성환 (회장) ●위원장: 김성환 (회장) ●위원장: 김성환 (회장)

용어유감 (用語有感)

수필

장은주 (정과·정3)

사람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이름이 있었나니 이름은 '사람'이라는 용어에 대해 얼마나 고심하고, 냉소하고, 두려움을 느꼈던가. 대중에게서 이런가수가 유행해 마치 '사람'이란 단어를 무작정 흘리는데, '그가 사람이라는 언어의 참뜻을 알겠는가?'하고 수없이 조소를 보낸 적이 있었다...

1987년 4월 13일, 소위 호헌조치가 발표되었을 때였다. 당시 국내 생활을 하고 있던 나는 '모든 사물은 아직 TV발표를 시청하고 각자 맡은 장소에서 근무를 시작하라'는 중대장의 TV를 방송을 듣고 내부에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나는...'라는 용어였다.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씨가 쓰는 자신의 호칭은 '나는...'이었다. 그 이후 전력을 하고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씨의 TV연설을 들을 기회가 자주 있었다. '본인은...' '본인...' '본인...'에서 '본인'이 어떤가? '본인'은 국민에게,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권력자도 아닌 사물을 숭배하듯 숙하고 있을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 자신을 가리켜 본인이라고 칭하고 있었다. 그렇게 일방이 '사람'은 '자유인'을 인도한다

주주의 제제에서는 국민이 주라는 것은 '민주'이라는 용어이다. 1984년만해도 '민주'이라 함은 용어의 사용은 인간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불문수 피어 거의 사용이 안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원을 사이에 보편화는 안됐지만 운동권에 서는 보편화가 되어 이용되는 것은 '민주'라는 용어이다. 1984년만해도 '민주'이라 함은 용어의 사용은 인간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불문수 피어 거의 사용이 안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원을 사이에 보편화는 안됐지만 운동권에 서는 보편화가 되어 이용되는 것은 '민주'라는 용어이다.



만 역사 앞에, 민족 앞에 땀을 내뿜은 민족을 가져다 주었다. 민족이라는 용어는 일반화되지 못한 이유는 그 자체에서 대를 물려오는 것을 포함하여 대학내에서의 학술용어로 정착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회주의 대학에서의 민족의 용어에 대한 자리매김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바로 살기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다. '무엇인가'라는 것이 있었나? 하는 원론적인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그 이름에서부터 어떤 실체와 함의가 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 바로 살기 운동을 했어야 할까? 하지만 우리 전조 중에 우리가 바깥에 나가 많았다는 것은 자치단체, 일반민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5월 13일 정국에서 논의된 것은 한반도, 그 기근, 전쟁, 그리고 식량난의 외침과 함께 남의 땅은 한반도 통일된 것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우리가 아니었나? 우리가 무엇을 바로 살기 못 하였는지 이 시대의 참모습을 4년 전 하고도 몇몇몇의 나이에 바로 살기라는 운동을 해라 할까? 논쟁 소

“시절이 하수상하니 기존의 용어가 자주 헛갈린다”

“자유민주주의”의 제제를 확고히 하고 이를 부정하는 세력은 단호히 뿌리 뽑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의 여러가지 조건을 나열하는 것조차 귀찮다. 딱 한가지만 써보자. “행동하는 민족적 자각”이라고 하자. 이것은 다 바리고 이 한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민족주의의 바XX대로는 최근의 당직 개편 후 말했다. “역사 앞에 걸림돌이

단결의 함성 일터에 울려 퍼진

전통문화예능의 현대적 창조 작업을 벌이면서 마당극, 마당극의 변형과 노동극, 농민극, 도시민극 등의 다양한 형태에서 젊은이들의 외침과 함께 남의 땅은 한반도 통일된 것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우리가 아니었나? 우리가 무엇을 바로 살기 못 하였는지 이 시대의 참모습을 4년 전 하고도 몇몇몇의 나이에 바로 살기라는 운동을 해라 할까? 논쟁 소

신간 소개

슬픈 시대의 우화 - 편지봉 우물
박한 글 속에서 대학가의 발란한 기지와 해학, 일상을 느낄 수 있는 신간문학의 기쁨을 맛보는 책이다.
85년 1학기에서 87년 1학기까지 발간된 신간문학을 총 각 대학의 문제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련된 이념,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들이 시기별로 정리되어 있다.
(주문소출판 2권 255원)

인간수업 - 이기영 지음
1930년대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되었던 작품으로 식민지배하 지식인의 고뇌와 삶을 그리고 있는 장편소설이다.
일제하 종파문학의 맥으로 손꼽히는 이 책은 철학을 전공한 한 지인이 관련 철학에 관한 글을 제기로 자기 자신의 현실적 재창조를 위해 노동자의 현실

문예산책

중년 노동자회관 미션의 집 수석과 가족들의 갈등, 위험한 대결을 미끼로 한 회수자의 회수, 이를 둘러싼 노동자들이

지식인적 추상성·관념성 극복 노동극 양식의 체계화 이룩

그러나, 세태마당은 '한가위 대동국'으로 연대의 의지를 높이고 그려냈다. 네세마당은 '전야'로 지역정당위원들의 혼란을 화사숙의 태러움으로 밝혀지고 대결정립이 노동자 내내 이 지역노동대결이 한가위 대동국 준비를 한다. 한편 수



신간다는 즐거움을 담고 있다. (동빛출판 2권 455원)

한글민중의 현단계 - 정철영 외 지음
한신대학 3세계문화연구소 역음
민중론의 과학적인 학문적 화를 위해 분과·학문별로 진행되어 온 연구성과를 한곳에 모은 책으로, 사회·경제·사회의 철학·신학·교육학·심리학 등을 거쳐 쓰여진 민중에 관한 논문 6편이 실려 있다.
(동빛출판 2권 455원)

한글민중의 현단계 - 정철영 외 지음
한신대학 3세계문화연구소 역음
민중론의 과학적인 학문적 화를 위해 분과·학문별로 진행되어 온 연구성과를 한곳에 모은 책으로, 사회·경제·사회의 철학·신학·교육학·심리학 등을 거쳐 쓰여진 민중에 관한 논문 6편이 실려 있다.
(동빛출판 2권 455원)

한글민중의 현단계 - 정철영 외 지음
한신대학 3세계문화연구소 역음
민중론의 과학적인 학문적 화를 위해 분과·학문별로 진행되어 온 연구성과를 한곳에 모은 책으로, 사회·경제·사회의 철학·신학·교육학·심리학 등을 거쳐 쓰여진 민중에 관한 논문 6편이 실려 있다.
(동빛출판 2권 455원)

한글민중의 현단계 - 정철영 외 지음
한신대학 3세계문화연구소 역음
민중론의 과학적인 학문적 화를 위해 분과·학문별로 진행되어 온 연구성과를 한곳에 모은 책으로, 사회·경제·사회의 철학·신학·교육학·심리학 등을 거쳐 쓰여진 민중에 관한 논문 6편이 실려 있다.
(동빛출판 2권 455원)

한글민중의 현단계 - 정철영 외 지음
한신대학 3세계문화연구소 역음
민중론의 과학적인 학문적 화를 위해 분과·학문별로 진행되어 온 연구성과를 한곳에 모은 책으로, 사회·경제·사회의 철학·신학·교육학·심리학 등을 거쳐 쓰여진 민중에 관한 논문 6편이 실려 있다.
(동빛출판 2권 455원)



가세 개 내조국 해방의 땅 살이라는 뜻이 담긴 찾아가세 전한 군부독재 폭력과 맞서다

소박한 소망과 뜨거운 동지애 오직 그 하나로 맞선 찾아가세 전한 군부독재 폭력과 맞서다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우리에게 쓰임새 (172) 신발

(학원 후 신발을 신자하면 결혼 후에 도망간다-금기 (禁忌) 중에서)
우리 민족의 금기담 속에는 한민족의 역사와 풍습이 스며있다. 일상생활에서 요긴한 일용품이 금기담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아도, 신발은 이런 모든 슬픔을 나타낸다.
“가을을 밟아 보면 나쁘다”라든가 “가을을 밟면 재수 없다”에서 “가을”은 재수 또는 운수를 뜻한다.

학생들 왜 이래 까불지 말고 시험봐 / -중추위(중간고사추진위원회)-

여름방학 동안 한양대 체육으로 정신없고, 개강하고는 10월이 한양대의 날, 개천절, 추석이 앞만와서 중간고사구나! 이 땅의 학교들이 빨리 시험봐라. 체육대신 공부 좀 해라!
-1학년이 13학년 열이 버린 한 학생-
중간고사 중간고사학하고 기 말고사 기가져 잘 보자! -반과 반들이-

학생들 왜 이래 까불지 말고 시험봐 / -중추위(중간고사추진위원회)-

여름방학 동안 한양대 체육으로 정신없고, 개강하고는 10월이 한양대의 날, 개천절, 추석이 앞만와서 중간고사구나! 이 땅의 학교들이 빨리 시험봐라. 체육대신 공부 좀 해라!
-1학년이 13학년 열이 버린 한 학생-
중간고사 중간고사학하고 기 말고사 기가져 잘 보자! -반과 반들이-

한국의 국어대학

한국의 국어대학

한국의 국어대학

4가지 표준봉투

표준규격봉투가 곧 기계화봉투입니다.

표준규격봉투가 곧 기계화봉투입니다.

외국어연수원생 모집

1. 학과 및 인원
제27기 주간과정...영·불·중·서어 총 100명
제31기 야간과정...영·일어 총 120명
일반과정...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노어, 일어, 영어 각 15명 1개반
2. 지원자격
주·야간과정...공무원 및 무역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반과정...자격 제한 없음
3. 교육기간
주·야간과정...1990.2.5(월)~1990.6.22(금)(5개월간)
일반과정...1990.2.5(월)~1990.4.13(10주간)
4. 수업시간
주간과정...09:00~17:00(1일 7시간, 주 6일 총 760시간)
야간과정...18:30~21:20(1일 3시간, 주 5일 총 300시간)
일반과정...19:30~21:20(1일 2시간, 주 4일 총 80시간)
5. 원서접수 기간
1989.10.10(화)~1989.10.31(화)(22일간)
6. 시험일시 및 장소
1989.11.4(토) 오후 2시, 외국어 연수원
7. 시험과목
저항 외국어 필기시험(주·야간과정에 한함)
8. 원서 교부·접수 기관
공무원...총무처 교육훈련과(720-3876)
회사원...한국무역협회 연수 개발과(551-5374, 5375)
일반과정...외국어연수원 교과과
*기타 상세한 것은 외국어연수원 교과과(962-7119) 또는 원서 교부·접수기관에 문의 할 것.

한국의 국어대학

후반기 예비군 교육

1. 대학별 교육훈련 일정 (교육시간: 해당일 08시~17시)

교육일정	교육 대상	집결 장소
10월23일(월)	서양어대, 경제학과대	동대문교방(비금 사격장)
10월24일(화)	통역대, 상경대, 철학과(4학년)	교방전(사내버스) 165, 162-2번
10월25일(수)	각대학원, 법대, 사법대, 교직원	파서비스 765번
10월26일(목)	*용인 캠퍼스 서양어대, 인문대, 교직원	*하양심리 및 청량리에서 각각 출발
10월27일(금)	*중앙이문대, 사회과학대, 자연과학대, 교직원	

2. 교육훈련통지서 배부
1) 서울캠퍼스 학부·비상계획실(예비군 연대 본부)
2) 각 대학원: 해당 교과과
3) 용인캠퍼스: 예비군 대대본부 및 학과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여 교육시 필히 지참 할 것.

3. 유의 사항
1) 교육 비대상
○89년도 전역한 예비군 전원
○소집면제자(미필·보충역)전원
○행정관리요원(병 및 일반사서:54, 55년생)전원
○금년도 지역에서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예비군 본부에 확인요)
2) 교육훈련대상자는 예비군복(교장에서만 착용)훈련소집 통지서, 신분증 및 증서를 지참하고 교육일 07:50분까지 교육장에 도착할 것.
(복장 불량자 및 지각자는 귀가 조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캠퍼스 예비군 본부에 문의 할 것.

1989. 10월

한국의 국어대학

4가지 표준봉투

표준규격봉투가 곧 기계화봉투입니다.

1호 개인서신, 기업홍보물용

모래는 사람
서울시 용문구 서울로 100번지
110 050

받는 사람
서울 중구 충무로2가 21번지
홍길동씨

2호 개인서신, 기업홍보물용

3호 초창·연회용

4호 초창·연회용

■ 89. 11. 1일부터 규격봉투 요건이 확대 적용됩니다.
*가로: 최소 140mm, 최대 235mm *세로: 최소 90mm, 최대 120mm *두께: 최대 5mm
*지질: 70g/㎡ 이상 *색상: 흰색 또는 연한색 *우표첨부: 정해진 위치
*우편번호: 정해진 위치에 비록하게 기재 *봉합: 봉합선 위치
*표면 및 내용물: 전단하고 균일 *무게: 최대 50g

한국의 국어대학